

# 미국 노동운동진영 내에 부는 중국 바람(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미국

정선욱 (미국 코넬대학교 국제노사관계학 박사과정)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공회(노동조합)를 둘러싼 논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국노동조합단체들의 중국공회 관련 정책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가령, SEIU의 앤디 스티이 2002년 이후 꾸준히 중국공회와 접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해에는 미국의 양대 노동조합단체의 하나인 Change-to Win(CtW) 대표단이 북경에서 중국공회와 공식적인 미팅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 중국공회에 비판적이었던 AFL-CIO는 2008년 2월 내부 토론을 거쳐 '대화' 전략으로 선회하였고, 존 스위니 위원장은 조만간 AFL-CIO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ACFTU<sup>1)</sup> 대표자와 공식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지난해부터 여러 곳에서 중국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열린 세미나를 통해 미국 내에서 중국공회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sup>2)</sup>

지난 4월 중순, 포드 박물관으로 유명한 미시간주의 디어본(Dearborn)에서 레이버 노트(Labor Notes) 연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가장 흥미로운 세션은 중국 관련 세션이었다. 단순 구색 맞추기식의 일회용 세션이 아니라 3일 동안 16시간에 걸쳐 5개 세션이 열렸다. 중국 본토 및 홍콩의 활동가는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 독일, 뉴질랜드, 호주, 미국, 스리랑카, 베트남, 한국 등 전 세계에서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실, 이번 중국 세션은 미국 노

1) 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2) 최근 들어, 하버드대학 노조간부 교육프로그램(2007), 하버드 로스쿨 초청강연(2007), 고용관계학회(LERA) 연례 회의(2008), UC 산타크루즈대학 중국 노동관련 학술대회(2008), 코넬대학 노사관계 세미나(2008) 등 많은 곳에서 중국 노동 및 노사관계 변화 양상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번 레이버노트 세미나는 토론 내용이나 참여자의 다양성 면에서 이전 세미나보다 좀더 풍부하였다.

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해 온 주최측, 즉 레이버 노트(Labor Notes)의 기본 성향과 중국 세션 주요 진행자들의 성향이 상충적인 면이 있어서 미팅 전부터 관심을 불러모았다. 5개의 중국 노동 세션을 진행자들의 기본 성향은 적극적 개입(engagement)전략을 펼치는 친(親)중국 공회(pro-ACFTU)파였다. 중국 남부지역 공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활동가 엘렌 프리드만, 미국 SEIU와 중국총공회(ACFTU)의 교환방문시 통역을 담당한 버클리대학의 일라이 프리드만, 캐나다자동차노조 중국 방문을 진행했던 케이시 워커, 비판적이지만 중국공회 내에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있는 애니타 찬, 미국 주류 노동운동진영의 인종주의와 반공산주의 정서를 비판하며 중국 관련 전략을 강하게 주장해 온 UCLA의 켄트 왕 등이 주요 진행자 및 참여자였다.

예상되듯이,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논쟁은 ‘중국공회(ACFTU)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개입(engagement)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현실을 인정한 뒤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중국에서 공회 이외의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회를 부정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관점을 요약하면, “비록 현재 관점에서 중국공회가 반(半)정부기관이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동에서 보듯이 점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밝은 면을 인정하면서 각급 지방공회의 깨어 있는 젊은 간부들을 잘 교육시켜 중국공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반(反)중국공회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親)공회파들의 행동이 결국 중국정부나 팔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외국 노동조합 대표단이 북경에 가서 중국총공회 간부들과 악수하고 즐거운 만찬을 나누면 나눌수록 중국 각 지역에서 약하게나마 일고 있는 자율적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 및 풀뿌리 노동운동은 더욱 더 탄압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각국 노동조합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경공향에 내려서는 순간 중국 정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가 ACFTU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ACFTU와 공식 관계를 체결하는 순간 현재의 ACFTU 정책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다. 중국공회의 간부들은 노동자들보다는 자신들과 중국정부를 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개입 전략보다는 중국 노동환경 및 중국 공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력한 비판이 가장 올바른 전략이다.”

이 첫 번째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개입전략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지난 시기의 미국노동조합의 제3세계 개입전략을 근거로 공회 비판자들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중국공회가 노동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AFL-CIO는 왜 그동안 중국공회처럼 유명무실했던 아시아 및 남미 개발도상국의 상당수 어용 노동조합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들이 중국공회와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결국 오십보 백보 아닌가?” 이 주장은 개입파의 켄트 왕이 지난 10여 년간 해온 주장과 거의 비슷하였다.<sup>3)</sup> 켄트 왕은 중국공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서 공회 반대파와의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를 위함에 있어서 일부 남미(가령, 멕시코) 노동조합과 중국공회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왜 AFL-CIO는 멕시코 노동조합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중국공회는 배척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결국, 미국 주류 노동조합 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반공산주의, 인종주의 편견 때문이다.” 결국, 2라운드 논쟁은 “우리의 적(target)은 누구인가?”로 귀결되었다. 연계(engagement)전략을 주장하는 친공회파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다국적기업을 타깃으로 여겼다. 이들은 SEIU의 앤디 스톤 위원장의 말처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international solidarity)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 노동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노동조합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공회의 구조적 한계나 중국 내 노동자 상황에 눈감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 즉 좀더 긴 안목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중국공회를 인정하고 그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어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정부나 중국총공회가 국제연대의 틀 안에 놓이게 되면 외국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내 자유노조운동을 덜 탄압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방문을 통해 발견한 각급 지역 공회 조직의 젊은 간부들을 주목하고 있다. 비록 중국중앙총공회 조직은 철저히 정치적 틀 안에 놓여 있어 구조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이들 젊은 간부들을 계속적으로 포섭하고 의식을 불어넣어서 이들이 향후

3) 켄트 왕(Kent Wong) 주장에 대해서는 New Labor Forum: A Journal of Ideas, Analysis, and Debate 13(3)의 “Blaming it all on China,” 14(1)의 “Kent Wong replies China remains the exceptions” 참조바람. 반대편 주장에 대해서는 14(1)의 “Skirting the fact on China, Barbara Shailor responds to Kent Wong”을 참조바람.

중국공회 조직 개혁의 선두에 설 수 있게끔 하자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반(反)공회 진영은 자신들의 적은 다국적기업은 물론이요, 중국의 자유노조운동을 탄압하는 중국공회도 가장 중요한 타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중국 남부 지역의 자유노조운동이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 탄압에 가장 앞장서는 조직이 중국공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공회주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노동자 인터뷰 경험을 소개하며 기업수준, 지역수준, 중앙조직수준의 공회 간부들이 정부나 기업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쪽 진영의 사람들은, 예전에 중국정부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주로 홍콩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동광과 현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공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철저히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이들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질문 역시 논란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팅 참석자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좀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공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안 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미국 노동운동진영, 더 나아가 전세계 노동운동진영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방법론은 크게 세가지, 즉 ACFTU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각 지역의 노동 NGO 활성화, 다국적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성화로 모아졌다.

첫째, 중국공회를 통한 중국 노동환경 개선전략. 이 전략은 개입(engagement)을 주장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전략으로 전 세계 노동조합들이 중국공회의 각급 조직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전방위적으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정부 및 중국공회가 좀더 친노동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주요 근거로 최근 월마트 노조화 과정을 거론하면서, 중국공회 간부들에게 서방의 노조화 경험을 열심히 전수해 주고 지도함으로써 이들을 각성시키자고 주장한다. 캐나다자동차노조의 케이씨 워커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단체협상 과정에 대해 중국공회 간부들에게 강의하면 매우 흥미로워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최근에 중국에서 그 간부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은 예전에 자신에게 배운 것을 단체협의 (collective consultation)때 많이 활용한 듯하였다.” 하지만, 중국총공회 이외의 어떤 노동조합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인 중국공회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중국공회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전략이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 비판

이 뒤따랐다.

둘째, 노동 NGO 활성화 전략. 개입전략이든 비판전략이든, 모든 이들이 각 지역의 노동관련 NGO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반정부단체인 공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단체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 초청된 중국 현지에서 노동자센터(worker center)를 운영하는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노동 NGO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전달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첫째 노동 NGO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 활동이 법을 어기면 안 되고 그 지역 공무원이나 지역 공회의 눈 밖에 나면 그 조직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운이 좋아 이 조직이 잘 살아 남아서 지역 내에서 노동자들을 잘 대변한다고 소문이 나고 노동자들의 신망을 얻게 되면 지역 공회간부들이 접근을 해서 지역 내 공회와 협조해서 활동할 것을 요구 받는다. 셋째, 앞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계속적으로 살아 남는다 하더라도 항상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들이 대변하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기부금을 얻기가 정말 힘들다고 한다. 설사 충분한 돈을 외국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구미에 맞게 써주어야 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중국기관에 알려지면 그 뒤부터는 지역 기관들이 수상히 바라보고 점점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개입전략을 주장하는 이들은 중국공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회로 하여금 이들을 억압하지 말고 잘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만약 중국공회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외국인이 노동자센터 같은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겠냐며, 비판자들이 의지만 앞섰지 순진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거론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정작 기업수준의 공회에 대해서는 설립 압력만 가하였을 뿐 정작 그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상, 많은 경우 기업공회는 기업 경영진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들이 기업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조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유명 스포츠 의류회사인 리복은 자사의 CSR 방침에 따라 중국내 생산 체인에서 공회주석의 민주적 선거를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자사의 CSR 방침에 따라 중국 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민주공회

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컨퍼런스 주최측의 좌파 성향을 반영하듯 기업의 CSR 활동을 불신하는 참석자가 많았다. 기업의 CSR 자체가 위선이라고 주장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모니터링 (monitoring) 회사들의 영성하고 친기업적인 감시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여러 공방과 토론 속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 일치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총공회 조직은 워낙 크기 때문에 공회 내에서 여러 다양성들이 존재한다는 점, 각 지역의 노동 NGO의 싹을 소중히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면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류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번 중국 세션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불고 있는 미국 노동운동진영 내의 중국 바람(風)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바람이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으며 얼마나 효과적인 중국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북미권이나 유럽의 참석자들 중에는 국제연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공부하려 하지 않고 서구적 노동조합 관념으로 중국을 이해하려 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정반대측, 즉 중국공회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중국체제에 대한 이해 없이 “5년 안에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비현실적 주장을 펼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 받을 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내 여러 곳에서 중국 노동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노동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미국내 학교(경영, 법학, 공공정책 등), 중국 비즈니스 관련 로펌, HR 컨설팅회사, 노동조합 등 여러 곳에서 계속되는 토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중국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KLI**